

한국 전통 식생활 예절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정도

이연정 · 김지희* · 한재숙*

경주대학교 외식조리과, 위덕대학교 외식산업학부*

(2005년 6월 30일 접수)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erformance for Korean Traditional Table Manners

Yeon-Jung Lee, Ji-Heui Kim*, and Jae-Sook Han*

Department of Food service management and Culinary, Gyeongju University, Korea

Division of Food Service Industry, Uiduk University, Korea*

(Received June 30, 200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desirable table manner culture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practice of traditional basic table manner. The subjects were consisted of 1,261 participants(618 males and 643 females) in Daegu and Kyungpook. The recognition, practice of traditional basic table manner were measured on the five-point Likert scale.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overall recognition score on ordinary table manner was 3.74 points, and of methods and kinds of dinner services was 2.99 points. The education score on table manner of parents for sons and daughters was 3.66 points, and the necessity score of table manner was 3.92 points. The scolding score of adults for table manner was 2.79 points, and cooking score of side dishes for adult was 3.25 points. In result of analyzing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traditional table manner, perception is much higher than performance. Respondents consider that the most perceptual and performant traditional table manner item is 'eating foods inside mouth by not seeing and rushing out'. Meanwhile, 'eating and taking some foods from a main dish' was the lowest perception and performance. The total recognition score on traditional table manner was 77.78 points, and the total practice score on traditional table manner was 71.72 points.

Key Words : recognition, performance, table manners

1. 서론

식생활은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그 민족의 의례 규범이 삶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고유한 문화유산으로서 생명유지를 위한 본능적인 행위이다.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면 한 민족의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¹⁻³⁾.

「예기」에 따르면 「예의 시작은 음식에서 비롯되며 음식을 통해 질서와 신분이 생겼다.」⁴⁾고 하여 식생활 예절이 모든 예의범절의 기본이 됨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밥상머리교육인 일반 식사예절교육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그 예의범절 교육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⁴⁻⁷⁾. 「소학」⁵⁾명음식지절(明飲食之節)을 비롯한 Lee⁶⁻⁷⁾, Kim⁸⁾, Ju⁹⁾, Kim¹⁰⁾, Ju¹¹⁾등의 식예절과 관련한 연구에 보면 「남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자기만 배불리 먹지 않

도록 하며, 한 그릇의 밥을 같이 먹을 때에는 손을 적시지 않도록 한다. 밥을 뭉개지 말아야 하며, 밥술을 크게 뜨지 말아야 하며, 흘리지도 말아야 한다. 입속에서 혀 차는 소리를 내어가면서 먹지 말아야 하며, 뼈가 달린 고기를 먹을 때에는 뼈까지 씹지 말아야 하며, 먹다 남은 생선이나 고기를 그릇에 도로 놓지 말아야 하며, 개(狗)에게 뼈를 던져 주지 말아야 하며, 구태여 먼저 먹으려하지 말아야 한다. 더운 음식을 식히기 위하여 혜적이지 말아야 하며, 기장밥을 젓가락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 국 속에 나물이 있으면 마시지 말아야 하며, 국이 입에 맞지 않더라도 양념을 치지 말아야 하며, 젓국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젓은 고기는 이로 물어 끊고, 말린 고기는 이로 물어 끊지 말고 손으로 찢으며, 적(炙)은 한입에 다 먹지 말아야 한다.」⁵⁻¹¹⁾고 하여 식사 중에 지켜야 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본인이 지켜야 할 식사예절 범절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Lee⁶⁾는 「여사서」여범 통론편에 「어린이에게 예절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은 식사에서부터 비롯한다.」고 하여 식생활 예절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예기」⁴⁾의 제17편에는 「군자를 모시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군자가 먹기를 끝난 뒤에야 자기도 그만 먹는 것이고 밥술을 크게 뜨지 말아야 하며, 국을 흘리며 마시지 말아야 하며, 밥은 조금씩 떠서 빨리 먹을 것이요, 자주 씹되 입 모양이 보기 싫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입안 가득히 밥을 넣는 것을 삼가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기」내측 12편과 이덕무(李德懋)의 「사소절(士小節)」 동규(童規)편, Lee⁶⁻⁷⁾, Kim⁸⁾, Ju⁹⁾, Kim¹⁰⁾, Ju¹¹⁾ 등의 식예절과 관련한 연구에서 「자식이 능히 밥을 먹거든 오른손을 쓰도록 가르치며, 일곱 살이 되면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같이 앉게 하지 않으며, 같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한다. 여덟 살이 되면 집안의 문을 드나들거나 자리에 나아가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어른이 먼저 드신 뒤에 하게 하여 사양하는 미덕을 가르치게 한다. 부녀가 할 일은 알뜰히 익혀서 의복을 장만하도록 하며 제사 지낼 때에는 함관하면서 술, 초, 면, 두, 김치, 젓갈 등의 제물을 드려 행례를 도와야 한다. 웃어른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비록 거둬 나온 반찬이라도 사양치 아니하고 먹으며, 마주앉은 손님이 있을 때에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먹는다.」⁴⁻¹¹⁾고 하여 어릴 때부터 지켜야 할 식사교육의 중요성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의 식예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맹자는 말하기를 「먹이에만 급급한 사람은 남이 천히 여긴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에 정신을 빼앗겨, 큰 뜻을 기르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⁵⁾고 하여 밥상머리 교육인 일반 식예절을 가장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식사 시간이 서로 다르게 되었고 서구 문명의 유입과 경제 지향적인 사회풍조 만연과 가치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개인편의 위주의 생활방식 지향으로 전통적 가치체계가 변화하고 식예절도 무너져가고 있으며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¹²⁻¹⁴⁾.

더욱이 식예절의 약화는 가족구성원간의 연대의식 부족과 가족 응집력 부족을 초래하여 가정 및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역사적 경험이 다른 세대간의 생활규범에 대한 가치의식의 차이는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켜 오늘날 가정문제, 사회문제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¹⁵⁻¹⁶⁾.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갈등문제와 예절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문화의 뿌리를 알고 다듬어서 올바른 식생활 예절을 정립시켜 후손에게 물려주고 세대 차이를 극복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식예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상생활예절과 관련한 연구¹⁷⁻²⁰⁾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모든 예의범절의 기본이며 음식을 통

해 질서와 신분이 생겼다고 전하는 가장 중요한 식생활 예절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의 기본 식예절에 대한 관심도, 인지도 및 실천도를 조사하여 현재의 식예절에 대한 동향 파악과 아울러 앞으로의 올바른 식예절교육의 방향과 기초자료 제시 및 바람직한 전통 식예절 문화 정착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10대에서 60대의 남녀 1,5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100명을 대상으로 2003년 1월 4일부터 1월 20일 까지 실시하였고, 이 설문지를 통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3. 1. 25~2003. 2. 25까지 1개월에 걸쳐 남자 618명(49.0%)과 여자 643명(51.0%)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미 회수된 것과 불완전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1,261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7문항, 일상 식생활 예절과 관련한 인지도 6문항, 전통 식예절 20문항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성장지, 결혼여부, 월수입, 가족형태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일상 식생활 예절과 관련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항목으로는 식예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반상차림의 종류와 상 차리는 법에 대해 아는 정도, 부모가 자녀에게 예절 교육을 시키는 정도, 식예절에 대한 필요성, 식예절과 관련해 어른께 꾸중을 들은 정도, 반찬을 어른 위주로 만들고 있는 정도 등의 6개 항목이었다. 이들 문항에 대한 인지도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해 인식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셋째, 전통 식예절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는 예로부터 중요시 여겨오던 일반적인 식예절, 식사중의 예절, 식사행동측면의 예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실천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선행연구를 참고⁴⁻¹²⁾로 하여 연구자에 의해 고안된 문항 20개를 5점 Likert 척도로 실시하였다. 이때 매우 잘 안다 혹은 매우 그렇다 5점, 잘 안다 혹은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잘 모른다 혹은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모른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계산하여 총 만점 100점으로 하였고 각 식품의 섭취 빈도를 합한 값을 개인별로 점수화하여, 이 점수를 전반적인 식예절 인지점수 및 실천점수로 보았다.

3. 자료의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PC+10.0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고,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가 49.0%(618명), 여자가 51.0%(643명)이었고, 연령 분포는 10대 19.2%, 20대 15.4%, 30대 13.5%, 40대 20.9%, 50대 16.2%, 60대가 14.8%이었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40.8%로 가장 많았다. 주성장지는 대도시 거주자가 61.6%로 가장 많았고, 혼인여부는 기혼자가 64.5%이었다. 직업은 가진 경우가 42.4%, 직업을 갖지 않은 경우가 57.6%이었고, 월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28.3%로 가장 많았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2.8%, 확대가족이 17.2%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Gender	Male	618(49.0)
	Female	643(51.0)
	Total	1261(100.0)
Age	10s	242(19.2)
	20s	194(15.4)
	30s	171(13.5)
	40s	264(20.9)
	50s	204(16.2)
	≥ 60s	187(14.8)
	Total	1261(100.0)
Education	≤ Middle school	407(32.8)
	High school	328(26.4)
	≥ College	506(40.8)
	Total	1241(100.0)
Main growth area	Big city	762(61.6)
	Middle, Small city	225(18.2)
	Farm, Fishing, Mountain village	250(20.2)
	Total	1237(100.0)
Marriage	Marriage	800(64.5)
	Not marriage	441(35.5)
	Total	1241(100.0)
Monthly Income	< 1,000,000	204(17.2)
	1,000,000~1,999,999	321(27.1)
	2,000,000~2,999,999	335(28.3)
	≥ 3,000,000	325(27.4)
	Total	1185(100.0)
Family type	Big family	217(17.2)
	Nuclear family	1042(82.8)
	Total	1259(100.0)

2. 일상적인 식생활 예절에 대한 인지도

1) 일상 식사예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현대의 일상 식사예절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 조사대상자의 일반 환경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일상 식사예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점수는 5점 만점에 3.74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어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일상 식생활에서 식사예절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이 10대(2.51점)나 20대(2.39점)에 비해 높게(P<0.001),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상이 중졸이하보다 높게(P<0.001),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게(P<0.001), 월평균수입에 따라서는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특히, 100만원 이상이 100만원 미만 보다 높게(P<0.001) 현재의 일상 식사예절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반상차림의 종류와 상 차리는 법에 대해 아는 정도

반상차림의 종류와 상 차리는 법에 대해 아는 정도를 조사대

<Table 2> The overall recognition score on ordinary table manner

Variables		M±SD	F-value (t-value)
Gender	Male	3.73±0.72	-0.71
	Female	3.76±0.71	
	Total	3.74±0.72	
Age	10s	3.61±0.69 ^b	10.09***
	20s	3.49±0.71 ^b	
	30s	3.84±0.61 ^a	
	40s	3.89±0.70 ^a	
	50s	3.82±0.69 ^a	
	≥ 60s	3.80±0.78 ^a	
	Total	3.74±0.72	
Education	≤ Middle school	3.64±0.72 ^b	7.83***
	High school	3.75±0.77 ^a	
	≥ College	3.83±0.66 ^a	
	Total	3.74±0.71	
Main growth area	Big city	3.75±0.71	2.24
	Middle, Small city	3.75±0.73	
	Farm, Fishing, Mountain village	3.79±0.73	
	Total	3.74±0.72	
Marriage	Marriage	3.85±0.70	7.26***
	Not marriage	3.55±0.70	
	Total	3.75±0.72	
Monthly Income	< 1,000,000	3.56±0.80 ^b	6.91***
	1,000,000~1,999,999	3.75±0.70 ^a	
	2,000,000~2,999,999	3.78±0.66 ^a	
	≥ 3,000,000	3.85±0.73 ^a	
	Total	3.75±0.72	
Family type	Big family	3.75±0.74	0.12
	Nuclear family	3.74±0.71	
	Total	3.74±0.72	

***p<0.001

상자의 일반 환경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5점 만점에 평균 2.99점의 보통점수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3.12점)가 남자(2.85점)보다 높게($P<0.001$),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이상의 연령이 가장 높게 그 다음은 30대, 20대, 10대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P<0.001$),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의 순으로 높게($P<0.001$), 주성장지별로는 농, 어, 산촌이 중소도시나 대도시보다 높게($P<0.0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게($P<0.001$),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P<0.05$) 높게 반상차림의 종류와 상 차리는 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낮은 연령층, 도시거주자, 미혼자, 핵가족 집단의 사람들에게 대한 반상차림의 종류나 상 차리는 법에 대한 교육의 기회 즉 음식 박물관 견학이나 전통요리 체험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통 반상차림은 반과 반찬을 주로 하여 격식을 갖추어 차리는 상차림으로 한사람이 먹도록 차린 반상을 외상(독상)이라 하였으며, 3첩, 5첩, 7첩, 9첩, 12첩이 있는데 첩이란 밥, 국 김치, 조치, 종지(간장, 고추장, 초고추장 따위)를 제외한 쟁첩(접시)에 담은 반찬의 수를 말한다.

<Table 3> The recognition score on methods and kinds of dinner services

Variables		M ± SD	F-value (t-value)
Gender	Male	2.85 ± 0.87	31.63***
	Female	3.12 ± 0.84	
	Total	2.99 ± 0.87	
Age	10s	2.48 ± 0.70 ^d	46.65***
	20s	2.69 ± 0.75 ^c	
	30s	2.86 ± 0.79 ^b	
	40s	3.37 ± 0.85 ^a	
	50s	3.22 ± 0.84 ^a	
	≥60s	3.27 ± 0.83 ^a	
	Total	2.99 ± 0.86	
Education	≤ Middle school	2.85 ± 0.91 ^c	11.11***
	High school	3.15 ± 0.84 ^a	
	≥ College	2.98 ± 0.83 ^b	
	Total	2.99 ± 0.87	
Main growth area	Big city	2.90 ± 0.85 ^b	12.53***
	Middle, Small city	3.01 ± 0.86 ^b	
	Farm, Fishing, Mountain village	3.20 ± 0.85 ^a	
	Total	2.98 ± 0.86	
Marriage	Marriage	3.20 ± 0.85	169.84***
	Not marriage	2.58 ± 0.72	
	Total	2.98 ± 0.86	
Monthly Income	< 1,000,000	3.00 ± 0.90	0.10
	1,000,000~1,999,999	3.04 ± 0.88	
	2,000,000~2,999,999	3.02 ± 0.83	
	≥ 3,000,000	3.02 ± 0.86	
	Total	3.02 ± 0.86	
Family type	Big family	3.11 ± 0.91	5.36*
	Nuclear family	2.96 ± 0.85	
	Total	2.99 ± 0.87	

*p<0.05, ***p<0.001

3첩과 5첩은 서민상, 7첩과 9첩은 반가상, 12첩은 임금님 수랏상이었으며, 반찬의 종류를 정할 때는 재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고 빛깔과 영양도 고려해서 했다²²⁾. 이러한 우리나라의 반상차림은 영양상의 균형뿐 만아니라 조리법도 다양하여 입맛의 변화를 주는 독특한 상차림으로 여겨지고 있어 우수한 우리의 반상차림을 세계화하는데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부모가 자녀에게 예절교육을 시키는 정도

부모가 자녀에게 식사예절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는지를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 조사대상자의 일반 환경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부모가 자녀에게 식사예절교육을 시키는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6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3.71점)가 남자(3.61점)보다 높게($P<0.01$), 연령에 따라서는 30대 이상의 연령층이(30대:3.80점, 40대:3.75점, 50대, 60대:3.70점) 20대(3.48점)와 10대(3.55점)의 낮은 연령층보다 높게($P<0.0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3.75점)이 미혼(3.52점)보다 높게($P<0.001$), 평균수입

<Table 4> The education score on table manner of parents for sons and daughters

Variables		M ± SD	F-value (t-value)
Gender	Male	3.61 ± 0.76	5.59**
	Female	3.71 ± 0.72	
	Total	3.66 ± 0.74	
Age	10s	3.55 ± 0.84 ^b	5.66***
	20s	3.48 ± 0.77 ^b	
	30s	3.80 ± 0.62 ^a	
	40s	3.75 ± 0.71 ^a	
	50s	3.70 ± 0.73 ^a	
	≥60s	3.70 ± 0.69 ^a	
	Total	3.66 ± 0.74	
Education	≤ Middle school	3.61 ± 0.76	1.62
	High school	3.66 ± 0.75	
	≥ College	3.70 ± 0.72	
	Total	3.66 ± 0.74	
Main growth area	Big city	3.65 ± 0.75	1.20
	Middle, Small city	3.65 ± 0.73	
	Farm, Fishing, Mountain village	3.73 ± 0.72	
	Total	3.66 ± 0.74	
Marriage	Married	3.75 ± 0.71	4.92***
	Not married	3.52 ± 0.73	
	Total	3.66 ± 0.72	
Monthly Income	< 1,000,000	3.50 ± 0.79 ^c	6.02***
	1,000,000~1,999,999	3.64 ± 0.79 ^b	
	2,000,000~2,999,999	3.68 ± 0.68 ^{ab}	
	≥ 3,000,000	3.77 ± 0.69 ^a	
	Total	3.66 ± 0.74	
Family type	Big family	3.77 ± 0.75	5.88**
	Nuclear family	3.64 ± 0.74	
	Total	3.66 ± 0.74	

p<0.01, *p<0.001

에 따라서는 평균수입이 높을수록(P<0.001),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높게 (P<0.05) 부모들이 자녀에게 식사예절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식사예절의 필요성

식사예절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대상자의 일반 환경변인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식사예절에 대한 필요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2점으로 높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30대 이상의 연령층(30대:4.09점, 60대:4.01점, 40대:3.99점, 50대:3.98점)이 20대(3.73점)와 10대(3.74점)의 어린 연령층보다 유의하게(P<0.001) 높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상의 학력이 높을수록(P<0.0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4.01점)가 미혼자(3.75점)보다 높게(P<0.001), 평균수입에 따라서는 200만원이상의 평균수입이 높을수록(P<0.01) 식사예절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반상차림의 종류와 상차리는 법에 대해 아는 정도가 높고 부모가 자녀에게 예절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인지하는 고 연령층이 식사예절의 필요성도 높

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대나 20대의 낮은 연령층에 대한 식사예절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생활예절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 습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위해 가정 내에서의 부모교육과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지도교육과 생활관 교육, 사회에서의 문화센터교육이나 TV, 인터넷 교육 등의 다양한 식생활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5) 식사예절과 관련해 어른께 꾸중을 들은 정도

식사예절과 관련해 어른께 꾸중을 들은 정도를 조사대상자의 일반 환경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5점 만점에 평균 2.79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부모님으로부터 식사예절과 관련해 꾸중을 많이 듣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2.88점)가 여자(2.70점)보다 높게(P<0.001), 연령에 따라서는 40, 50대의 높은 연령층이 20, 10대의 낮은 연령층보다 높게(P<0.01) 식사예절과 관련해 어른께 꾸중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The necessity score of table manner

Variables		M±SD	F-value (t-value)
Gender	Male	3.90±0.66	0.45
	Female	3.93±0.66	
	Total	3.92±0.66	
Age	10s	3.74±0.67 ^b	11.09***
	20s	3.73±0.65 ^b	
	30s	4.09±0.55 ^a	
	40s	3.99±0.70 ^a	
	50s	3.98±0.66 ^a	
	≥60s	4.01±0.58 ^a	
	Total	3.92±0.66	
Education	≤Middle school	3.82±0.67 ^b	7.43***
	High school	3.97±0.64 ^a	
	≥College	3.97±0.65 ^a	
	Total	3.92±0.66	
Main growth area	Big city	3.90±0.66	2.82
	Middle, Small city	3.90±0.62	
	Farm, Fishing, Mountain village	4.01±0.66	
	Total	3.92±0.65	
Marriage	Marriage	4.01±0.63	44.99***
	Not marriage	3.75±0.67	
	Total	3.92±0.66	
Monthly Income	<1,000,000	3.81±0.77 ^b	4.97**
	1,000,000~1,999,999	3.87±0.69 ^b	
	2,000,000~2,999,999	3.98±0.57 ^a	
	≥3,000,000	4.00±0.63 ^a	
	Total	3.93±0.66	
Family type	Big family	3.95±0.68	0.79
	Nuclear family	3.91±0.65	
	Total	3.92±0.66	

p<0.01, *p<0.001

<Table 6> The scolding score of adults for table manner

Variables		M±SD	F-value (t-value)
Gender	Male	2.88±0.89	F=14.18***
	Female	2.70±0.85	
	Total	2.79±0.87	
Age	10s	2.68±0.83 ^c	F=3.16**
	20s	2.71±0.86 ^{bc}	
	30s	2.69±0.80 ^c	
	40s	2.82±0.81 ^{ab}	
	50s	2.89±0.95 ^{ab}	
	≥60s	2.94±0.97 ^a	
	Total	2.79±0.87	
Education	≤Middle school	2.79±0.89	F=0.15
	High school	2.80±0.90	
	≥College	2.77±0.83	
	Total	2.78±0.87	
Main growth area	Big city	2.74±0.86	F=2.96
	Middle, Small city	2.84±0.87	
	Farm, Fishing, Mountain village	2.88±0.89	
	Total	2.78±0.87	
Marriage	Marriage	2.81±0.89	F=3.32
	Not marriage	2.71±0.83	
	Total	2.77±0.87	
Monthly Income	<1,000,000	2.73±0.96	F=1.50
	1,000,000~1,999,999	2.77±0.88	
	2,000,000~2,999,999	2.87±0.81	
	≥3,000,000	2.78±0.87	
	Total	2.79±0.87	
Family type	Big family	2.85±0.97	F=1.26
	Nuclear family	2.77±0.85	
	Total	2.79±0.87	

p<0.01, *p<0.001

<Table 7> Cooking score of side dishes for adult

Variables	M±SD	F-value (t-value)	
Age	20s	3.14±0.84 ^{cd}	9.50***
	30s	3.26±0.82 ^{bc}	
	40s	3.28±0.85 ^{bc}	
	50s	3.39±0.89 ^{ab}	
	≥60s	3.50±0.96 ^a	
	Total	3.25±0.88	
Education	≤Middle school	3.11±0.93 ^b	7.24***
	High school	3.31±0.85 ^a	
	≥College	3.32±0.84 ^a	
	Total	3.25±0.88	
Main growth area	Big city	3.21±0.87	1.996
	Middle, Small city	3.26±0.86	
	Farm, Fishing, Mountain village	3.34±0.94	
	Total	3.24±0.88	
Marriage	Marriage	3.34±0.898	28.10***
	Not marriage	3.07±0.83	
	Total	3.25±0.88	
Monthly Income	< 1,000,000	3.27±0.94	0.17
	1,000,000~1,999,999	3.29±0.93	
	2,000,000~2,999,999	3.29±0.84	
	≥3,000,000	3.25±0.86	
	Total	3.27±0.88	
Family type	Big family	3.36±0.96	4.28*
	Nuclear family	3.22±0.86	
	Total	3.25±0.88	

*p<0.05, ***p<0.001

6) 반찬을 어른 위주로 만들고 있는 정도

식생활 담당자들만을 한정하여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 반찬을 어른 위주로 만들고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3.25점으로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P<0.001),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P<0.0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게(P<0.001),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높게 반찬을 어른 위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통 식사에절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

1) 전통 식사에절에 관한 인지도와 실천도의 차이 분석

소학(소학 제 3권 명음식지절, 예기 내축), 사소절(동규경정), 내훈(언행장), 여사서(여범통론편)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예로부터 중요시 여겨오던 일반적인 식사에절, 식사중의 예절, 식사행동측면의 예절 중 대표적인 전통 식사에절 20항목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모든 항목에서 실천도가 인지도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전통 식사에절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잘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항목별로 인지도와 실천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Table 8> A comparison with perception and practice score on traditional table manner

variables	perception	practice	t-value
1 ¹⁾	4.02±0.97	3.96±1.06	2.43*
2	3.94±0.81	3.79±0.84	8.05***
3	3.81±1.04	3.50±1.11	11.73***
4	4.11±0.91	3.60±1.03	18.71***
5	4.04±0.84	3.65±0.93	16.70***
6	4.02±0.89	3.66±1.04	13.70***
7	3.90±0.95	3.67±1.05	8.69***
8	4.01±0.86	3.70±0.97	11.74***
9	3.78±0.93	3.36±1.02	15.41***
10	3.58±1.00	3.26±1.02	11.99***
11	3.58±1.05	3.46±1.08	4.89***
12	4.08±0.86	3.71±0.99	13.85***
13	3.35±1.04	2.93±1.04	14.79***
14	4.22±0.82	3.97±0.88	11.42***
15	3.90±0.94	3.75±0.96	5.78***
16	3.73±0.99	3.31±1.02	15.25***
17	3.60±0.98	3.28±1.00	12.24***
18	3.95±0.94	3.60±1.02	12.48***
19	4.03±0.95	3.88±1.02	5.65***
20	4.13±0.94	3.94±1.05	7.39***

- 1) 1. 아이에게 반드시 오른손으로 밥을 먹도록 가르친다. 2. 어린이 예절교육은 식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 3. 식사 전·후에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다. 4. 수저는 어른이 먼저 들고, 먼저 놓으신 다음 내가 들고 는다. 5. 음식을 먹을 때 그릇소리, 씹는 소리, 삼키는 소리 등을 내지 않는다. 6. 팔로 방바닥이나 식탁을 짚거나 신문을 보면서 식사하지 않는다. 7. 수저를 함께 들고 먹지 않는다. 8. 식사 중 구증, 불쾌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 9. 식사 도중에 자리를 뜨지 않는다. 10. 남과 같은 시간에 식사를 끝내도록 한다. 11. 국, 물김치 등 국물 있는 음식을 조금 먹은 다음에 밥을 먹는다. 12. 반찬을 뒤적이지 않는다. 13. 음식은 보조 접시에 덜어 먹는다. 14. 입에 든 음식이 보이거나 튀어나오지 않게 먹는다. 15. 음식을 입맛 다시며 먹지 않는다. 16. 고기 뼈 등의 이물질은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한다. 17. 식사 중 어른이 묻는 것 외에는 공연한 잡담을 하지 않는다. 18.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는다. 19. 식사 후 상머리에서 이를 쑤시지 않는다. 20. 물을 마실 때 소리 내어 입안을 헹구지 않는다.

*p<0.05, ***p<0.001

으로 전통적인 식사에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항목이 실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입에 든 음식이 보이거나 튀어나오지 않게 먹는다.'는 항목은 인지도(4.22점)와 실천도(3.97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 식생활 예절로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식사에절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물을 마실 때 소리 내어 입안을 헹구지 않는다.'(인지도 4.13점, 실천도 3.94점), '수저는 어른이 먼저 들고, 먼저 놓으신 다음 내가 들고 먹는다.'(인지도 4.11점, 실천도 3.60점), '반찬을 뒤적이지 않는다.'(인지도 4.08점, 실천도 3.71점), '음식을 먹을 때 그릇소리, 씹는 소리, 삼키는 소리 등을 내지 않는다.'(인지도 4.04점, 실천도 3.65점), '식사 후 상머리에서 이를 쑤시지 않는다.'(인지도 4.03점, 실천도 3.88점), '아이에게 반드시 오른손으로 밥을 먹도록 가르친다.'(인지도 4.02점, 실천도 3.66점), '팔로 방바닥이나 식탁을 짚거나 신문을 보면서 식사하지

않는다.'(인지도 4.02점, 실천도 3.96점), '식사 중 꾸중, 불쾌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인지도 4.02점, 실천도 3.70점) 등의 순으로 높게 식사예절을 알고 있으며 또한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지도와 실천도 모두가 낮은 항목은 '음식은 보조 접시에 덜어 먹는다.'(인지도 3.35점, 실천도 2.93점), '남과 같은 시간에 식사를 끝내도록 한다.'(인지도 3.58점, 실천도 3.26점), '국, 물김치 등 국물 있는 음식을 조금 먹은 다음에 밥을 먹는다.'(인지도 3.58점, 실천도 3.46점), '식사 중 어른이 묻는 것 외에는 공연한 잡담을 하지 않는다.'(인지도 3.60점, 실천도 3.28점) 등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음식은 보조 접시에 덜어 먹는다.'가 인지도와 실천도 모두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나 한국음식의 개선점과 관련한 Seo 등²³⁾이나 Sim 등²⁴⁾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위생적인 면이 한국음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볼 때 식탁에서 우리가 특히 지켜야 할 예절은 음식을 보조 접시에 들어 먹는 것이라 여겨지며 그것이 우리 식탁의 문제점인 위생적인 면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많은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와 관련하여 Kim¹⁰⁾, Kim 등⁸⁾, Ju¹¹⁾ 등 많은 연구자들이 국제화시대에 맞는 신 식탁예절로 음식을 보조 접시에 덜어 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본 조사 결과, 전통식사예절에 대한 실천도가 인지도보다 많이 낮게 나타나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예절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며 성장하면서 학교에서의 급식시간의 식사예절교육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식생활예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제적으로 몸에 익혀 가는 것이 건전한 사회와 올바른 식문화와 식생활태도의 정착에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전통 식사예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점수

전통 식사예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점수를 조사대상자의 일반 환경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100점 만점에 평균 77.78점의 보통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79.49점)가 남자(75.93점)보다 높게(P<0.001), 연령에 따라서는 30대가 가장 높은 반면에 20대가 가장 낮게(P<0.0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게(P<0.001),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수입이 높을수록(P<0.01) 전통식사예절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로는 남자, 연령은 20대, 결혼상태는 미혼자, 월평균 수입은 낮은 집단의 사람들에게 대한 전통 식사예절 교육이나 홍보의 기회를 더 높여나가 전통 식사예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전통 식사예절에 대한 전반적인 실천도 점수

전통 식사예절에 대한 전반적인 실천도 점수를 조사대상자의 일반 환경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으며 100점 만점에 평균 71.72점의 보통정도의 점수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73.01점)가 남자(70.92점)보다 높게(P<0.001),

<Table 9> The total recognition score on traditional table manner

Variables		M±SD	F-value (t-value)
Gender	Male	75.93±11.88	-5.24***
	Female	79.49±10.81	
	Total	77.72±11.35	
Age	10s	76.97±11.36 ^{bcd}	5.35***
	20s	75.30±10.77 ^d	
	30s	80.95±12.14 ^a	
	40s	78.89±11.68 ^{ab}	
	50s	78.24±11.02 ^{bc}	
	≥60s	76.26±11.11 ^{cd}	
Total		77.74±0.66	
Education	≤ Middle school	77.27±11.06	2.69
	High school	77.01±11.92	
	≥ College	78.77±11.52	
	Total	77.81±11.50	
Main growth area	Big city	77.89±11.54	1.04
	Middle, Small city	76.72±11.34	
	Farm, Fishing, Mountain village	78.22±11.48	
	Total	77.74±11.49	
Marriage	Marriage	78.57±11.58	3.23***
	Not marriage	76.29±11.17	
	Total	77.42±11.37	
Monthly Income	< 1,000,000	75.57±11.77 ^b	3.82**
	1,000,000~1,999,999	77.53±11.57 ^{ab}	
	2,000,000~2,999,999	78.66±10.83 ^a	
	≥ 3,000,000	78.94±11.84 ^a	
	Total	77.90±11.52	
Family type	Big family	77.86±9.84	0.14
	Nuclear family	77.73±11.81	
	Total	77.78±10.82	

p<0.01, *p<0.001

연령에 따라서는 10대,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P<0.001),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이하가 고졸이나 대졸이상보다 낮게(P<0.0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게(P<0.001) 전통 식사예절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성별로는 남자, 연령은 10대와 20대, 학력은 중졸이하집단, 결혼상태는 미혼자 집단의 사람들에게 대한 전통 식사예절 교육의 기회나 홍보의 필요성이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통의 기본 식사예절에 대한 인지정도와 실천정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식사예절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일상 식사예절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3.74점으로 보통 이상이었고 연령, 학력, 월평균수입 등이 높고(P<0.001), 기혼자가(P<0.001)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2. 반상차림의 종류와 상 차리는 법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

<Table 10> The total practice score on traditional table manner

Variables		M±SD	F-value (t-value)
Gender	Male	70.92±11.78	-3.05**
	Female	73.01±10.79	
	Total	72.02±11.34	
Age	10s	67.91±11.15 ^b	14.62***
	20s	68.52±9.65 ^b	
	30s	73.78±11.19 ^a	
	40s	74.81±11.02 ^a	
	50s	74.38±10.58 ^a	
	≥60s	72.37±12.08 ^a	
Total		72.00±11.31	
Education	≤ Middle school	69.64±11.93 ^b	12.04***
	High school	73.35±10.58 ^a	
	≥ College	73.14±11.05 ^a	
	Total	72.06±11.34	
Main growth area	Big city	71.78±11.64	1.69
	Middle, Small city	71.26±10.23	
	Fam, Fishing, Mountain village	73.16±11.24	
	Total	71.96±11.32	
Marriage	Marriage	73.94±11.13	8.12***
	Not marriage	68.31±10.68	
	Total	71.42±10.87	
Monthly Income	< 1,000,000	70.39±11.49	2.09
	1,000,000~1,999,999	72.30±11.40	
	2,000,000~2,999,999	72.61±10.86	
	≥ 3,000,000	72.96±11.63	
	Total	72.24±11.35	
Family type	Big family	71.30±10.64	-0.96
	Nuclear family	72.14±11.45	
	Total	71.72±10.92	

p<0.01, *p<0.001

점에 평균 2.99점의 보통점수를 보였고 여자, 높은 연령(P<0.001), 고졸, 농, 어, 산촌(P<0.001), 기혼(P<0.001), 확대가족(P<0.05)의 집단이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3. 부모가 자녀에게 식사예절교육을 시키는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6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고, 여자(P<0.01), 30대 이상의 연령층(P<0.001), 기혼(P<0.001), 평균수입이 높은 집단(P<0.001), 확대가족(P<0.01) 등이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4. 식사예절을 지켜야 할 필요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92점으로 높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 이상의 연령층(P<0.001), 고졸이상의 학력(P<0.001), 기혼자(P<0.001), 200만원 이상의 평균수입(P<0.01) 집단 등이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

5. 식사예절과 관련해 어른께 꾸중을 들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79점으로 꾸중을 많이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P<0.001), 40, 50대의 고 연령층(P<0.01)이 더 많은 꾸중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식생활 담당자가 반찬을 어른 위주로 만들고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25점으로 보통정도로 나타났고 연령과 학력이 높고(P<0.001), 기혼자(P<0.001), 확대가족 등이

반찬을 어른 위주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7. 대표적인 전통 식사예절 20항목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실천도가 인지도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고 '입에 든 음식이 보이거나 튀어나오지 않게 먹는다.'는 항목은 인지도(4.22점)와 실천도(3.97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 식생활 예절로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식사예절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식은 보조 접시에 덜어 먹는다.'는 가장 낮은 인지도와 실천도를 보여 국제화시대에 맞는 신 식사예절로 음식을 보조 접시에 들어 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8. 전통 식사예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7.78점의 보통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여자(P<0.001), 30대(P<0.001), 기혼자(P<0.001), 높은 수입(P<0.01)의 집단이 더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9. 전통 식사예절에 대한 전반적인 실천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1.72점의 보통정도의 점수를 보였고 인지도와 비슷한 경향으로 여자(P<0.001), 30대 이상(P<0.001), 고졸이상(P<0.001), 기혼자(P<0.001) 등이 더 높은 실천도를 보였다.

본 조사 결과, 전통 식사예절이나 반상차림의 종류, 상 차리는 법, 부모가 자녀에게 예절교육을 시키는 정도 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30대이상의 고 연령층이 식사예절의 필요성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대나 20대의 낮은 연령층에 대한 식사예절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생활예절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 습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위해 가정 내에서의 부모교육과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지도교육과 생활관 교육, 사회에서의 문화센터교육이나 TV, 인터넷 교육 등의 다양한 식생활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 연령은 10대와 20대, 학력은 중졸이하집단, 결혼상태는 미혼자 집단의 사람들이 전통 식사예절에 대한 실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에 대한 전통 식사예절 교육이나 홍보의 기회를 더 높여나가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국민 전반에 대한 전통 식사예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와 관련연구의 확대를 통해 올바른 식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건전한 가정생활 및 양보, 협동 및 예의바른 사회생활 문화를 재창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1) Yun SK. A study on the ritual foods according to various sacrificial rituals in the Hangkyo and the Seowon. Korean J. Dietary Culture 13(4): 241-260, 1998
- 2) Yun DI.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religion diet in Kang-Neung area to traditional standard and habitual practice. Korean J. Dietary Culture 12(5): 549-560, 1997
- 3) Yun SK. The food culture of marriage ceremony. Korean J. Dietary Culture 12(2): 227-244, 1997
- 4) Lee MS, Ye-Gi. Hyewon Publishing Company, 1995

- 5) Lee HC. So Hak <Juza>. Korean Free Education Association, 1972
- 6) Lee KP. A comparative study of the life etiquette between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younger one based on the norm - book. J Korean Home Economics 35(3): 125-137, 1997
- 7) Lee KP. Contents and characteristic of family norm education appeared in chosun Dynasty. J Korean Home Economics 32(4): 1-14, 1994
- 8) Kim DJ. Home life and etiquette, Kyomunsa Publishing Company, 1998
- 9) Ju YA, Park SH. Reflections on the contents of disciplinary books for young children of Chosun Dynasty. J Korean Society Of Women'S Culture 6: 151-176, 1999
- 10) Kim JI, Global new etiquette, Gypeunsarang Publishing Company, 1992
- 11) Ju WY. Etiquette dictionary, Suhaksa, 1985
- 12) Dillard BG, Weagley RO, Helmick SA. Satisfaction with Households Production by Hush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92
- 13) Barnett RC, Brennan RT.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e equation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95
- 14) P Post. Emily Post's Etiquette(16th ed.).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7
- 15) Kim JS, Noh EH. A analysis on the substance and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of general etiquette in elementary school. J Korean Society Of Women'S Culture 3: 235-260, 1996
- 16) Lim HK. A Study on Improvement of Etiquette in Life. J Korean Society Of Women'S Culture 1: 211-230, 1994
- 17) O HI, Kim YH. The effect of performance of living proprieties on family satisfaction of married men. J Korean Society Of Women'S Culture 11: 5-25, 2003
- 18) Kim YH, Lee JW. Practice of everyday life proprieties, dynamics of family system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arried couples. J Korean Home Management 21(2): 1-18, 2003
- 19) Kim JY, Lee JW. The effect of new generation housewives` etiquette awareness on their etiquette implementation. J Korean Home Management 20(3): 125-138, 2002
- 20) Lee Jw, Kim KA. The level of satisfaction middle - aged married women feel in their family lif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manners. J Korean Home Economics 37(1): 119-132, 1999
- 21) Lee JW, Kim YH. Study on the degree of interest to manners education before and attitude and behavioral change satisfaction of manners education after for women's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Home Economics 36(12): 161-173, 1998
- 22) Hwang HS. Korean traditional food. Kyomunsa Publishing Company, 1990
- 23) Seo KH, Lee SB, Shin MJ. Research on korean food preference and the improvement of korean restaurants for Japanese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9(6): 715-722, 2003
- 24) Sim YJ, Jung BM, Kim ES, Joo NM (2000) A survey for the international spread of Korean food from the Korean residents in the U. S.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6(3): 210-215, 2000